

광주역 亞비즈니스 출발지 일신방직 첨단섬유·문화단지

도시재생 뉴딜 경제기반형 신청 광주역 주변·일신방직 개발 방향

광주역~전남대 후문 어린이직업체험 테마파크 등
1단계 시립도서관·VR체험관...2단계 스마트밸리
유희부지 내 사유지 해결·민자 유치 등 과제 남아

광주시의 유희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대상 부지가 광주에 몇 남지 않은 개발대상지인데다 모두 역사·문화적, 거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들어설 시설의 종류와 개발·조성방식, 규모 등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 공영개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민간개발 압력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 성공사례 되나=광주시가 최근 밝힌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안)'에 따르면 광주역 주변은 원도심 재개발사업과 달빛내륙철도 건립 등 향후 개발 여건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개발하

게 된다.

우선 광주역 광장과 전남대 후문을 잇는 언더패스가 광주역 아래를 관통하고 민자 유치를 통해 어린이직업체험 테마파크와 호텔, 쇼핑센터, 영화관이 조성된다. 또 4차산업기술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시립도서관 건립과 VR체험관, 민간공동주택 조성 등이 1단계 추진사업으로 진행되고 비즈니스 타운인 스마트밸리와 공공청사 등은 2단계 추진사업으로 묶였다.

일신방직 광주공장은 크게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첨단섬유산업 활성화' 단지와 문화기술 엔터테인먼트 중심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등 기타 부지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첨단섬유산업 활성화 단지에는 연구입

■ 개발 방향

‘亞비즈니스 출발지’ 광주역

-전남대 후문까지 어린이직업체험 테마파크·호텔·쇼핑센터·영화관 조성
-4차산업 교육공간 시립도서관·VR체험관·주택...2단계 스마트밸리·공공청사

‘첨단섬유·문화기술 일신방직’

-첨단섬유산업 활성화 단지 연구입주공간·스마트 섬유제작·박물관
-문화기술 엔터테인먼트 중심지 CT연구소·스마트광장·비즈니스센터
호텔·폐공장 활용 상가 조성 등

주공간과 스마트 섬유제작, 방직박물관 건립,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업체 입주 등이 이뤄지고 문화기술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에는 CT연구소 이전 건립, 스마트문화광장, 공영주차장, 비즈니스센터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기본구상안에 담았다.

또 이곳에는 호텔을 유치하고, 폐공장을 활용한 상가를 조성하며 무등경기장을 활용한 후속 사업들도 진행된다.

한편 옛국군병원 이전부지에는 트라우마센터 건립, 도심힐링공원 조성, 문화업 무시설 건립, 시민예술촌 조성, 역사문화광장 조성 등의 사업이 계획됐다.

◇사유지 해결과 민자유치 등 숙제도=광주시의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에는 유희부지 내 사유지를 해결하고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광주역의 경우 역사와 철로는 이설이 불가능하고, 사립지구 복측의 차랑기지 이전의 경우 최소 5~6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차랑기지가 이전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좁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소화물·주차장구역(1.1만㎡) 이외에는 적정부지가 없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좁아 사업의 조기 착수가 어렵고 초기에 성과를 내기도 곤란하다.

일신방직 광주공장은 사유지 매입 등의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이 방직공장 이전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총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군사시설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무등산 군부대 이전 재원 확보 탄력

공공자금서 예수금 전입 가능

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방공포대) 이전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이전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이전하려면 기존 부지나 국방부 재산에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야하는데, 상시적인 세입 부족으로 이전비용 충당이 여의지 않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은 기존 세입 항목에 더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전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부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창구가 보다 넓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 500억원 규모인 이전사업비를 다른 회계에서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 이전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예산분야의 한 전문가는 “공자기금은 모든 부처에서 여유있는 기금이 나 회계에서 예약한 기금인데, 개정안 통과로 군부대 이전비용을 국방부가 공자기금 예수금에서 빌려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비용 마련을 위한 또 하나의 창구가 개설된 것으로, 공자기금 예수금 사용을 결정하는 정부(청와대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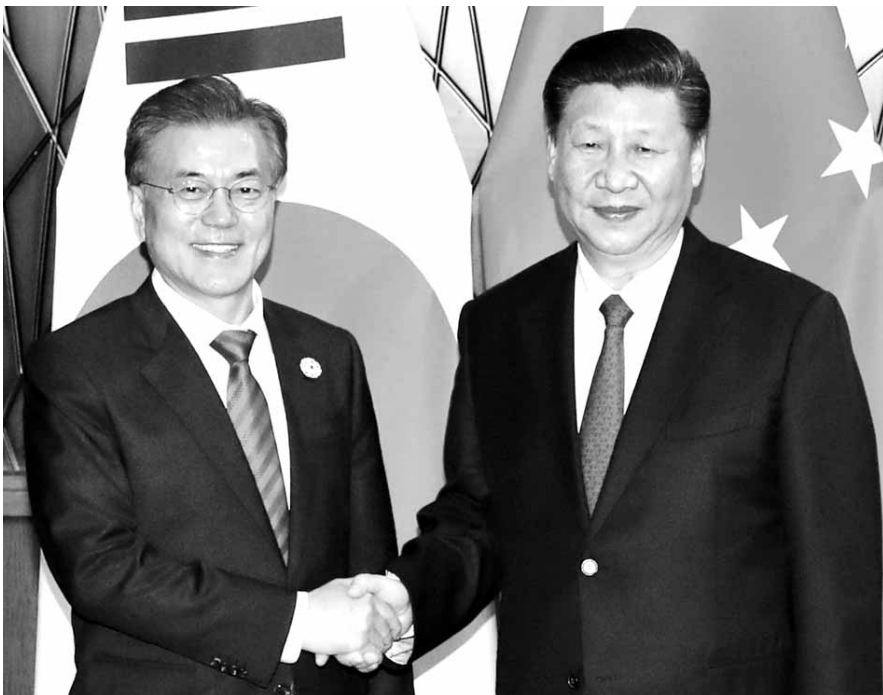
재부)를 움직이는 데 힘을 모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무등산 정상인 천왕봉 해발 1187m 고지에는 지난 1966년부터 공군 제8989부대 예하 3포대가 주둔 중이다. 주둔지 면적은 21만6894㎡로 국방부 부지가 아닌 공유지와 사유지다. 군은 지난 50여년간 부지사 용로 없이 무상으로 주둔해 왔는데, 최근 들어 군부대 이전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군부대 주둔으로 천왕봉을 비롯한 무등산 정상부 탐방이 지난 50여년간 제한됐고 기름 유출 등 환경 훼손도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군 기술 발달로 공군 방공포대가 더 이상 무등산 정상 등 고지대에 주둔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작전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부대 이전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그러나 국방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수입만으로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이전 비용 마련은 대체부지(부대가 옮겨갈 부지) 마련과 함께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의 양대 과제로 꼽혔었다.

권 의원은 “법을 개정으로 무등산 정상 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무등산 정상의 아름다운 경관을 광주시민께 조속히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PEC 정상회담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내달 중국서 세번째 정상회담

교류 협력 회복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조속한 교류협력 회복을 약속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을 쏘았다.

특히,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 문제를 포괄적

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중국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문 대통령의 오는 12월 방중에서 더욱 이점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둘러싼 3불(不) 원칙, 한중 균형외교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은 남아 있지만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연합뉴스

“적폐 청산, 정치 보복 폄하는 기득권 유지 위한 생각 아닌가”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대승적 차원에서 청산해야”

최근 열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17 추계 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 연임한 김희중(사진) 대주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새로운 시대 대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로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혔다.

급속도로 열어 붙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해

법도 제시했다. 김 대주교는 “조간없이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 민간인들과 종교인들이 접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제로섬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개진해 공통분모를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주교회의 의장으로 연임한 김 대주교는 앞으로 3년 동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를 이끌게 된다.

1947년 목포에서 태어난 김희중 대주교는 1975년 사제품을 받고 광주가톨릭대 교수와 금호동본당 주임신부를 거쳐 2003년 광주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으며 2009년 광주대교구장에 제1차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017 추계 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 연임한 김희중(사진) 대주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새로운 시대 대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교회의 의장이자 천주교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cpbc광주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적폐청산을 정치적 보복 수준으로 폄하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주교는 이어 “적폐청산 활동을 폄하하는 것은 자칫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이나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5·18 진실규명을 위한 최근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 대주교는 “만시지탄의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청산할 수 있는 5·18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또다시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목, 대중화 가능성 보여줬다

전남 국제 수목프레비엔날레 6만7천여명 다녀가

‘2017 전남 국제 수목프레비엔날레’가 한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2일 폐막했다. 내년 국제수목프레비엔날레 사전행사인 이번 행사에 대해 ‘수목의 대중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수목프레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수목의 여명-빛은 동방으로부터’를 주제로 열린 수목프레비엔날레에 관람객 6만 7000여명이 다녀갔다.

행사는 한국·중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11개국 작가 232명이 참가해 목목 문화예술화관과 노적봉 일대, 진도 운림산방 등 3개 권역에서 열렸다.

수목을 다룬 역대 최대 규모 행사를 통해 수목의 생명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문화 콘텐츠로서 가치를 확인하는 장이 됐다고 전남도는 자평했다. 또 전통 수목을 기반으로 채색·조형·설치·판화 등 시도는 ‘수목의 확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미디어 작가 이이남의 작품, 관람객이 가상현실(VR)로 수목화를 그려보는 체험 등은 수목의 현대적 감각을 일깨웠다. 한지를 처음 접한 한 서양작가는 한

지를 세워서 그리다 흘러내린 먹물에 당황했다는 뒷얘기도 있다.

작가들의 소품 100점을 1점당 1만원에 판매한 아트마켓은 시작 30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관람객 요구로 마련된 지난 4일 2차 판매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작품 5점을 구매해 아이들에게 선물로 건네는 등 이야깃거리도 남겼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비금도·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매 14억(임시불 대폭조정), 무인도
010-3605-5000 교환가능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2018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8: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8: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전형일	2017. 12. 5(화) 10:00~
합격자발표	2017. 12. 21(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외식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기독교대한학교 입학설명회

미국연수
2018년 1월 21일~2월 10일
함께 설명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1:30
문의 : (061)381-0000

TALK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